

5월말 vs 6월초 ? 평양 vs 제3의 장소 ?

북미정상회담 준비 박차

美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

장소·시기 양국 저울질

중재자 한국도 선택 복잡

4·27 남북정상회담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준비에도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장소와 시기 ‘퍼즐 맞추기’를 포함해 사활을 건 북미 간 수싸움도 한창이다.

실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전화 브리핑에서 아직 날짜와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최근 몇 주간 북미 간에 끊임없는 접촉이 있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담 개최 D-데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한국 특사단을 통해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받았을 당시 “5월 이내”를 언급했다가 지난 9일 “5월 어느 시점이나 6월 초”로 언급을 살짝 조정했다. 이후 굴러가는 상황을 보며 미국의 페이스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4·27 남북, 5월 한·중·일 및 한미 등 북



북미정상회담 어디서 열리나 주요 거론 지역

스웨덴, 스톡홀름, 몽골, 울란바토르, 북한, 평양, 판문점, 제주

제3의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판문점 및 제주도, 스웨덴 등 거론

미정상회담 전 잡힌 연쇄 정상회담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시기가 압축되는 가운데 구체적 날짜는 비핵화 사전논의의 추이 및 장소 결정 등과 맞물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관철을 위한 속도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무엇보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경우 ‘택일’을 미루며 압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비핵화 관련 성과를 견인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일정의 완급이 조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남향을 겪느냐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역사적 현장’이 될 장소 선정을 둘러싸고 북미, 그리고 중재자 내지 길잡이를 자임한 한국 간에 3각 선택을 복잡하게 가동되고 있다. 어느 곳이 낙점되느냐에 따라 상징성과 함의가 달라져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북한은 당초 평양 개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으로서선 트럼프 대통령을 ‘안방’으로 불러들일 경우 정상국가 이미지와 함께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에 맞는 ‘동급’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 카드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미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지다. 미국 쪽에서 ‘경호상 수백 명의 미국 선발대가 성조기를 매단 캐딜락을 타고 평양을 누비고

다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북한 측에 반문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2년전 언급한 ‘햄버거 협상’의 무대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도 가능한 후보지로 꼽히지만 현재까지 비중 있게 거론되지는 않는다. 경호상의 문제와 함께 잔용기 상태 등 김 위원장의 장거리 이동에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북미 양쪽의 홈그라운드를 제외한 중립적인 ‘제3의 장소’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측이 차선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소문이 도는 몽골 울란바토르가 의미있는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몽골과 함께 스웨덴도 유치가 적극적이다.

중재자인 한국도 여전히 후보지만 북미 모두 자칫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과 함께 일각선 제주도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의 스타일상 파격이 연출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할 순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간신 이임보

이임보(李林甫, ?~752)는 산성성 출신으로 호는 월당이다. 당 현종때 재상으로 현종 치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당 황실의 종친으로 국자사업을 거쳐 형부시랑과 이부시랑을 역임했다. 국자사업 재직 중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이에 학생들이 공적비를 세웠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덕과 능력이 있어 공적비를 세웠는가?” 학생들이 밤새 공적비에 새겨진 글씨를 지웠다고 한다. 문장이 약해 장열, 장구령 등 문인 관료에게 무시를 당했다. 그가 문벌파의 대표격으로 진사파를 공격한 데는 문학적 소양에 대한 콤플렉스가 바탕에 깔려 있다. 734년 재상이 되어

기가 서린 곳여서 이를 뚫는 것이 마땅치 않아 감히 보고하지 않았습다.” 황제가 이적지가 일을 가버어 처리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아주 어렵거나 지엽적 문제가 출제되도록 과거시험 방식을 바꿔 진사과 출신의 등용을 막았다. 새로운 인재의 등장으로 자신이 구축해 놓은 체제를 흔들지 않으려는 복심이였다. 시성 두보가 과거에 낙방한 것도 이 시기였다. 자신과 같이 재상직에 있던 우선객, 이적지, 진희열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삭방절도사 출신의 우선객은 장구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임보의 지원으로 재상이 되었다. 재상에 있던 6년간 자기 당파를 만들지 않고 이임보에게 적극 협력해 자리를 보존했다. 황족 출신인 이적지는 이임보의 계략에 말려 힘을 쓸 수 없

결과 속 달라 ‘구밀복검’ 고사 주인공

752년까지 19년간 권세를 휘둘렀다.

그는 법치주의를 숭상했다. 제도와 규정에 따라 행정을 집행했다. ‘당국 전’을 편찬해 법률체계 정비에 노력했다. 황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다. 제위에 오르지 20년이 지나 현종은 정사를 귀찮아했고 풍류를 즐기는데 몰두했다. 국정 현안을 빈틈없이 처리하는 그가 맘에 들었음은 물론이다.

재상이 된 후 재능, 공적, 명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제거했다. 특히 문학하는 인사를 시가해 걸

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뒤에서는 모함해 낙마시켰다. “입에는 꿀이 있지만 배에는 칼이 있다”는 구밀복검(口蜜腹劍)의 고사가 여기서 유래했다. 현종이 강주자사인 엄정지를 기용하려 하자 그의 동생 엄순지를 불러 형이 중풍이 걸려 황제를 알현할 수 없다고 주청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엄정지가 쇠약하고 늙어서 중풍이 들었으므로 병을 치료하게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고 보고해 기용되는 것을 막았다. 이적지가 황제의 신임을 받아 그를 모함해 빼뜨렸다. 그에게 말하기를 “화산에 금광이 있는데 이것을 캐면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데 황제가 이를 알지 못한다.” 다음 날 이적지가 황제에게 보고하니 이임보에게 하문했다. 그가 답하기를 “신이 이를 안지 오래되었으나 화산은 왕

었다. 진희열 역시 이임보가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보조 역할에 머물렀다.

이민족 출신을 절도사에 발탁하도록 한 것이야말로 최대의 실책이었다. 절도사는 전통적으로 고위 한족 관리가 담당하였는데 정적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한족 출신에게 문호를 개신 지 등이 절도사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에게 권세가 집중될수록 정적이 늘어났다. 그의 아들 이수가 이를 우려하자 “호랑이 등에 탄 형제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양귀비의 먼 친척오빠 양국충이 그를 낙마시킨 주역이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 세상사에 밝은 양국충은 누이의 도움으로 재정을 담당해 비단과 특산물 등 현종이 좋아하는 물품을 대거 진상했다. 이로써 황제의 신임을 받아 이임보와 대등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정부 창고의 충실함이 고급에 비할 것이 없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이임보가 아사나야포사와 왕홍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고발했다. 병중에 있던 이임보는 걱정과 반민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양국충을 만나 “나는 죽을 것이고 공은 반드시 재상이 될 것이요”라며 뒷일을 부탁했다. 752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후 관직을 박탈당하고 부관참시 되었으며 자신들도 유배되었다.

트럼프 만만다고 풀릴까

벼랑 끝 아베 반전 모색

사학스캔들 등으로 벼랑끝에 몰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20일 밤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반전을 모색한다. 아베 총리는 국내 신뢰도 하락을 미일정상회담으로 회복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처지는 자못 심각해 그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1%로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상태가 지속했고 비(非)지지율은 4% 포인트 오른 52%로 가장 높았다. 앞서 교도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내각 지지율이 37%로 보름새 5.4%포인트나 떨어졌다. 여기에 이달 14일 도쿄 국회 앞에서 열린 반(反) 아베 집회에 주최 측 추산 3만명 이상이 모여 사뭇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관계 강화라는 ‘트럼프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의 북미대화 표명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갑작스러운 밤미에는 미일 정상간 밀월(密約)에 대한 (일본의) 오산(誤算)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 폭에 담긴 시리아의 아픔 15일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 저장시설로 추정되는 지역이 공습 당한 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열린 반전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미국의 공습을 비난하는 그림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57,7평) 건물 : 728,97㎡(220,5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2,317,8평) 건물 : 6,864,61㎡(2076,5평)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통급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외에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등)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41,2평) 건물 : 265,58㎡(80,3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939,1평) 건물 : 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호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메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837,6평) 건물 : 3,793㎡(1147,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100억 병원, 학원, 사육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187,4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833,6평) 건물 : 3,568,32㎡(1079,4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701,4평) 건물 : 3,998,33㎡(1209,4평)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공장) 토지 : 7339,4㎡(2220,2평) 건물 : 4153,34㎡(1256,4평) 감정가 : 6,489,967,980원 최저가 : 4,542,978,000원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근린주택) 토지 : 4200㎡(1270,5평) 건물 : 401,96㎡(121,6평) 감정가 : 473,683,800원 최저가 : 331,579,000원
-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공장) 건물 : 1149,74㎡(347,8평) 감정가 : 675,787,160원 최저가 : 675,787,160원
-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공장용지) 토지 : 15590,5㎡(4716,1평) 감정가 : 1,839,679,000원 최저가 : 1,030,220,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